

보도분류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보도일시	2023. 5. 15(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과	서비스산업유치과
담당	과장 안도현, 글로벌캠퍼스팀장 김영곤, 담당 이우경(032-453-7332)

영어통용도시·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추진 지원 방안 등 모색 인천경제청·IGC운영재단, 올해 첫 생생협력 간담회 개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글로벌캠퍼스(IGC)운영재단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올해 첫 생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영어 통용도시(Bilingual City)’와 인천글로벌 캠퍼스 2단계 추진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15일 밝혔다.
- 간담회에서는 시장 공약사항인 영어 통용도시 사업 추진 방안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영어를 병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관해 논의했고 이를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역할 등도 모색했다.
- 또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추진과 관련해 대학유치 지원 방안과 외국교육 연구기관에 대한 평생교육법 개정, IGC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등 입주대학의 자생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IGC 입주 외국대학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포식과 간담회, 심포지엄 개최를 계획하는 등 송도국제도시를 영어 통용도시로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올해 봄학기 충원율 89.3%를 달성하는 등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앞으로 IGC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영어 통용도시와 IGC 2단계 추진, IGC 입주대학의 자생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2012년부터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되기 시작한 IGC는 우수한 교수와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해외대학 확장 캠퍼스다. ‘글로벌 교육 허브 조성’을 목표로 IGC운영재단이 지난 2012년 2월 설립됐으며 입주대학 재학생들은 외국 본교 학위 제공 및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고 재학기간 중 1년은 본교에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 현재 IGC에는 해외 명문대학인 뉴욕주립대(SBU),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FIT 등 5개 외국대학과 스탠포드 스마트시티 연구소가 입주해 있으며, 컴퓨터과학과, 데이터과학과, 게임디자인학과, 영화영상학과, 생명공학과, 패션디자인 등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학과를 운영, 졸업생들 가운데 다수가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첨단산업분야 등에 진출하고 있다.